

고흥군, 제주-고흥 교류 협력의 첫발 내딛다

제주도와 관광 활성화·농수산물 유통채널 확대 관광·물류 등 교류 활성화 추진 "상생 시너지 ↑"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16일 오영훈 제주 도지사를 만나 '고흥-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고흥과 제주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흥-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는 제주도와 관광 활성화, 물류확대 및 농수산물 마케팅 등 양 지역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공영민 군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앞서 다양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물류회사 (주)제주로지스틱스와 고흥농수특산물 공동마케팅 협약을 맺고, 고흥 쌀을 비롯한 고흥 농수특산물의 제주 전역 판로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군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해 '제주 캠퍼트리호텔&리조트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결해, 고흥군청 소속 직원들이 숙박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제주도청 기획관리실장과 제주발전 연구원장을 지내 제주도와 인연이 깊은 공영민 군수의 제주-고흥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공영민 군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만남에서 "고흥 농동향의 제주 물류 전진기지를 통한 물류 협력으로 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이며, "이를 위해 고흥 쌀을 비롯한 특산물, 가공식품 교류 및 농수특산물 공동마케팅으로 양 지역의 상생 시너지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고흥-제주 간 교류의 역사를 연구하여 양 지역 간의 역사·문화적 연



결교리를 발굴하고 물류 협력 사업, 드론 분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고흥-제주 교류협력 프

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 다각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으로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보성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인구감소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 세미나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했다. 보성군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제암산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등에서 세미나가 실시됐으며, 읍면 예산담당자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보성군 재정 운용의 현주소는 물론 건전한 미래 재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은 총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으며 △제1섹션은 조순대 행정학과 서순복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보성군 지방재정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흥사랑기부금제, 일본 고향세 납세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2섹션은 송실대 배귀희 교수 사회로 '지방재정과 지역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자치단체의 세율 자율성의 문제, 공유재산 관리방안, 보성군의 송계에 관한 고찰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제3섹션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이란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기 박사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투자사업 발표는 참여한 공무원들과 사회단체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이끌었다.

△제4섹션은 전남대 최승욱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서울시립대 김윤호 교수, 한양대 홍성만 교수, 청주대 하민철 교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유호 박사 등이 현 체제에서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 교수협의회인 한국 거버넌스 학회 교수님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분들이 지방재정 균형발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뜻깊다"며 "재정 현안을 논의해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대안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흥사랑기부금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지방재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구감소시대의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는 한국거버넌스학회(학회장 최성욱 전남대 교수)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백운산 고로쇠 약수 본격 출하

청정 백운산에서 채취...위생점검·소포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광양시는 1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채취·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가격은 500ml(10개) 22,000원, 1.5l(12개) 60,000원, 4.5l(4개) 60,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고로쇠 수액은 광양백운산고로쇠약수영농조합과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구입 가능하다.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청정지역 백운산의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된다. 날씨에 따라서 고로쇠 수액 채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봄 숲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경칩 무렵 채취가 시작되며, 미네랄과 마그네슘, 칼슘·비타민이 풍부하고 물보다 칼슘이 40배 더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

자들이 고로쇠 수액을 구입하고 있으며, 광양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들은 채취한 수액을 위생을 고려한 정제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소비자의 구매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해 소포장(500ml) 용기를 도입하고, 정제일자 및 지리적 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시의회 앞 로터리'

여문지구 랜드마크로 우뚝

여수시의회 앞 로터리의 삭막한 교통섬이 도심 속 정원으로 새 단장을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여문지구 도심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여수시의회 앞 로터리 조경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터리 조경사업은 로터리 내 나선형 조경 구조물을 설치하고 꽃과 잎이 아름다운 치자나무, 금목서, 남천 등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입체적 디자인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조경수 식재가 제한되는 구역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조경 자갈을 깔아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했던 로터리를 도심 속 정원으로 변화시켰다.

이로써 의회 앞 로터리는 여문지구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됐다.

여수=김현근기자

순천시,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설 성수품 물가 관리·교통·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 귀성객 맞이

순천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 교통안전,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실천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061-749-5459) 운영과 비상근무체제(252명)를 유지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21일과 24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정상 수

거하며, 22일, 23일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하수도, 가로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권역별 보수업체 및 일별 상황근무자도 배치한다.

최근 치솟는 소비자 물가 상승 대책으로 설 전후 사과, 배 등 30종의 명절 성수품의 물가를 중점 관리하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당일 시립공원묘지와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주변 교통 통제와 함께 공원묘지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육군1179 부대와 수자원공사는 주안댐과 상사댐 고립 지역 성묘객 수송을 위한 동력보트를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귀성객과 시민, 방문객 모두가 일상에 불편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